저주에 익숙한 저주받기의 달인들

(시편 109:1~31)

6.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7.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8.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9.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11.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12.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13.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14.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 버리지 마시고
15.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저주에 익숙한 저주받기의 달인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저주에 익숙한 저주받기의 달인들’
“아귀다툼”이라는 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서로 헐뜯고 싸우는 모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 불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불교에는 윤회사상이 있는데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섯 가지 세계로 나뉘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 삼악도(三惡道) 중에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귀도(餓鬼道)에 떨어진 사람들을 아귀(餓鬼)라고 하는데 36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몸은 태산만한데 목구멍은 바늘같이 길고 가느다랗습니다. 굶주림에 고통스러워하는 아귀가 음식을 먹으려 해도 고통스러워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아귀는 뱃속에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불을 내뿜어서 벌레를 잡아먹는데 삼키자마자 뱃속의 불에 의해 벌레가 타버리기 때문에 끝없이 배가 고픕니다. 어떤 아귀는 물속에 몸을 담구고 있는데도 목말라합니다. 물을 마시려하면 수면이 내려갑니다. 항상 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수면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귀는 여자인데 매

일 아기를 낳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가 낳은 아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도 배가 차지 않아서 날뜁니다.
이러한 아귀들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먹을거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싸운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래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서로를 헐뜯고 기를 쓰며 다투는 일을 아귀다툼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적 입장에서 불교의 아귀다툼에 대해 살펴보면 아귀도는 꼭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이 세상은 아귀도입니다. 모든 인간이 아귀가 되어 살아갑니다. 아귀도에서 겪는 저주의 핵심은 굶주림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 세상은 바로 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크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기에 만족 기쁨 행복이 없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은 하나님 크기의 마음을 채우지 못한 채 세상 울타리 안에서 굶주림으로 시달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불안 목마름 답답함 분노 시기 우울함 심리적 아픔 등을 비롯한 안 좋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크기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감정들입니다. 마음 채움에 장애가 생길 때에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인간은 육체의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채울 대상으로 믿는 것들이 육체가 살아있어야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못 만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지옥은 천국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국을 바라만 보는 지옥이 가진 세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어떤 것도 실제로는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옥에 가서야 돈은 물론이고 건강이나 수명도 결코 마음을 채울 수 없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출세 명예 명품 여가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천국이 보이는데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울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지식으로 인해서 지옥은 비로소 체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 생겨난 감정입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나면 돈이 없어도 걱정은 생기지 않습니다. 암에 걸리면 두려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나면 암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면 병은 더 이상 걱정의 대상도 아니고 불평의 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암 자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암을 즉시 고치실 수도 있고, 서서히

고치실 수도 있으며 설령 그대로 죽게 하시더라도 그것이 내게 두려움이나 불평이나 걱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두려움 걱정 원망 불평이 생긴다면 전부 내가 아귀 상태이기 때문에 생긴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크기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가졌다면 노숙자든 재벌이든 똑같은 아귀입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결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록 노숙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다면 재벌이 모르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아귀도와 같은 저주의 공간 안에서 어떻게 태연히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저주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 속에서 태어나고 저주 속에서 자라고 저주의 경계 안에 있는 희망을 갖습니다. 이 희망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 불행하지만 10년 뒤에라도 큰돈을 벌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경계 안에서 마귀가 제시하는 비전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마약을 투여하면 거짓된 행복을 얻을 수 있듯이 굶주린 아귀들에게 마약을 주며 미래의 희망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세상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의 의연함을 보자면 예수님은 엄살을 피우셨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심하다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던 것일까요?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의 고통을 주는 자리가 아닌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빠져나가셨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저주의 자리로 당신의 아들을 던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고 하늘을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공백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저주의 자리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희망이라는 마약을 맞으며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돈을 벌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암이 낫거나 자녀가 일류대학에 들어가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리라는 희망에 속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주는 곧 마음이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시고 무섭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윗이 자신의 대적자들을 향해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 모습이 나오는데 실로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도 실생활에서 이런 원망을 해본 적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경은 우리

에게 그렇게 살지 말 것을 당부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하였고 이어서 19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말했던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익숙하기에 오늘 시에서의 다윗의 노래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또한 다윗의 노래대로 실제로 저주를 받은 자들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의인의 마음이 상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저주대로 결코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임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지옥에서 완성되지만 오늘 다윗이 말하는 대로 삶에서 저주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8절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장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가룟 유다가 자결하면서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고 베드로가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빈자리를 채우고자 할 때에 이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다윗이 의도치 않고 한 말이 예언이 되어, 시대를 초월하여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다윗과 베드로가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예언적으로 저주를 하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일까요?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 본인은 자신의 대적자를 향해 저주를 했다고 여겼을지도 모르나, 성령님께서는 이를 성전 생활화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언적으로는 빌립보서 3장에서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향한 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오늘 다윗의 저주는 성전 생활화와 그 의미가 완성된 십자가 생활화의 대적자들을 향한 저주입니다.

이 기가 막히는 저주에서 한두 가지를 뽑아서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본대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저주의 대상이 다윗의 대적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선 7절을 보면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도 그것이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주 속에 갇혀서 드리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저주로부터 빠져나오는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에덴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는 저주의 삶에 대해 추구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주 안에 갇혀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자녀들이 유복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돈을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면 할수록 죄가 가중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죄는 곧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마음을 돈이 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첫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아홉 계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조차 건강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에서 나왔다면 죄입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죄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는 표적(sign)을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표적은 단순히 말해 간판입니다. 기적을 행하심으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운 자들이 나갈 때에 부차적인 효과로 병자들을 고칠 수도 있고 병이 고침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이 낫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러한 기도는 죄로 변합니다.
10절을 보면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굶주림에 대한 저주를 했으나, 성령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삶이 곧 그러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11절을 보면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재산을 모아도 결국은 공허한 상태가 이르게 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아귀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아귀도를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 여기고 있지만 실상 아귀도는 이미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뜨리시려고 주님께서는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귀도와 저주로 가득찬 세상 경계 밖으로 나가신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외에도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도 그랬고 나인 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의 도르가를 살려낸 적도 있었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삼층 누각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 청년을 살려낸 적도 있었습니다. 일찍이 구약에서는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활의 기적과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부활은 세상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바깥으로 나가신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바깥에 나가신 상태에서 사십 일간을 제자들과 지내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를 간단한 예로서 설명해봅니다. 자동차 앞 유리를 닦을 때에 얼룩이 있는 것을 보고 안쪽에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실은 그 얼룩이 바깥에 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깥쪽을 닦을 때 보이는 얼룩이 있는데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은 안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가 투명하기에 안과 밖의 구분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안쪽에 있었고 예수님은 세상 바깥쪽에 계셨습니다. 마치 유리창을 사이에 둔 듯 만남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분명히 밖과 안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오순절성령강림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개개인의 사건으로 경험하고서야 마음을 세상 바깥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초대교인이 되었고 이들 가운데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세상 바깥으로 보내자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 안쪽에서 지낼 때에는 아귀로 살았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돈을 움켜쥐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따라 세상 바깥으로 나가게 되자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채울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크기의 마음의 공백은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오직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갈 때에만 채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자 유무상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교회에서 표어를 정할 때에 유무상통으로 정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유무상통은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았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침묵하는 영역입니다. 구원받았음의 증거로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유무상통의 역사였는데,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구원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반열에는 들어섰을지 모르나 온전한 구원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주의 세계에 발을 담그고 구원의 약속만을 믿고 있는 셈입니다.

끝까지 저주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끝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저주의 세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셨습니다. 저주를 빠져나갈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할 정도로 저주에 익숙해졌던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야 비로소 이 저주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정도로 세상에서 저주에 익숙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마음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지고 손에 만져지고 귀에 들리는 모든 현실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기에 총력을 기울여야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내 마음은 세상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랄뿐입니다. 이것이 저주로부터 빠져나온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구원이 하루아침에 단칼에 무를 써는 것처럼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진전되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저주에 익숙하다고 저주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에 익숙한 저주의 달인들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의 달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세상이 온통 아귀다툼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부부는 배우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이들로 하나님의 공백을 채우려하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귀다툼에 익숙해진 달인들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